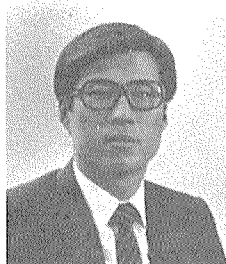


우리나라 電子産業의 課題



鄭夢憲 / 本會 理事
現代電子産業(株) 社長

지난 10여년간 우리의 電子産業은 우리 經濟의 戰略産業으로 또한 最大의 輸出産業으로 자리를 굳히며 量的 質的으로 획기적인 成長을 이룩하였다.

家電製品 中心의 生産 및 消費 構造도 '80年代 中반 이후 반도체 通信 컴퓨터 等の 分野로 그 폭을 넓혀 生産基盤의 構造的인 擴充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제 21世紀의 문턱에 선 우리의 電子産業의 앞날을 풀어야 할 많은 問題와 새로운 挑戰으로 가득차 있다.

지금 世界는 여러가지 面에서 새로운 變化의 時代를 열어가고 있다. 새로운 時代는 새로운 思考와 價値 그리고 그에 맞는 行動을 要求하고 있으며 同時에 그에 相應하는 機會와 危險을 公平하게 提供하고 있다.

새로운 時代를 맞는 우리 電子産業의 가장 큰 内部課題는 技術力의 向上이다. 앞으로는 産業의 競爭力과 附加價値의 根源은 技術力에 틀림없다.

· 垂直的으로 긴밀히 統合되고 垂直的으로 效率的인 聯關性을 갖춘 技術基盤이 없이는 世界市場에서 效果的인 競争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最終製品을 中心으로 얹게 넓게 펼쳐져 있는 우리의 技術을 좀 더 깊이 있게 深化시키고 수평적인

연관성을 增大시켜야 한다.

이는 素材와 部品에서 부터 製品에 이르기까지 主要한 基礎技術 및 要素技術의 自立과 發展없이는 우리 전자産業의 長期的인 成長을 기약할 수 없음을 意味한다. 一例로 今年들어 本格的으로 出市되기 始作한 Notebook型 PC의 경우 그 製品 自體로는 하나도 새롭고 革新的인 것이 없다. 從來의 Desktop PC의 縮小 또는 휴대용계산기의 機能 및 用量的인 擴張에 지나지 않으나 縮小된 크기 속에 必要한 모든 機能을 담을 수 있는 素材, 部品 및 System 技術의 統合이란 面에서 하나의 커다란 技術的인 進展이며 당분간은 日本 이외의 어떤나라도 獨自的으로 生産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우리 電子産業이 갖고 있는 커다란 挑戰은 地域經濟圈 形成에 따른 全般的인 國際市場秩序의 改編이다.

各 地域經濟圈이 궁극적으로 相當水準의 自給經濟圈의 形成과 規模의 擴大에 따른 域外經濟圈에 對한 協商力의 擴大을 目標로 하고 있는 만큼 輸出依存度가 70%를 넘는 우리 電子産業으로서 는 이에 대한 適切한 對應策의 마련이 時急한 실정이다. 近間的인 各種 Anti-Dumping 規制와 國產化比率規定 등이 모두 이러한 育

직임과 關聯이 있는 것으로 우리도 部分的으로는 相互主義에 立脚한 政策手段으로 解決이 可能하겠으나, 根本的인 問題解決은 業界 스스로가 技術 製品을 망라한 總體的인 競爭力의 向上으로 풀어야 할 것이다.

近來 이러한 外壓에 對한 對應策으로 現地投資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現地投資가 短期的인 要素費用의 差異에 의해서만 決定된다면 그 投資는 長期的으로는 成功을 期待하기 어렵다. 現地投資는 現地經濟가 必要로 하고 또한 거기에 寄與할 수 있는 要素와 投資者가 가지고 있는 競爭力優位要素가 效果的으로 結合되었을 때 그 成功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競争優位要素란 長期的으로 뛰어난 技術力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더구나 점차 國際化되는 資本調達과 自動化로 代替되고 比重이 낮아지는 勞動費用을 감안할 때 電子産業의 比交優位는 바로 技術力의 優劣에 달려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볼 때 '90年代를 맞는 韓國의 電子産業의 最大課題는 무엇보다 技術力의 早期擴充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電子業界의 于先的인 努力이 集中되어야 할 것이다.